

광주·전남 중기 실적 악화...배당률 '전국 최저'

제조업 중기 평균 배당률 5.5%로 전국 수준의 절반도 안돼 매출 증가율 2.3%로 급감...부채비율·차입금 의존도 높아

코로나19 확산 탓에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전국 평균 배당률이 10년 내 최고를 기록했지만, 광주·전남 업체들은 실적 악화로 배당률이 전국 최저를 나타냈다.

광주·전남 제조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이익이 크게 줄면서 현금 배당을 늘릴 여유자금이 부족했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광주·전남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평균 배당률은 5.5%로, 전국 10개 권역(제조 제외) 가운데 가장 낮았다. 광주·전남 지역 경영분석은 제조업 1만1244개를 포함한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5만7932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배당률은 배당금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기업경영에서 수익성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전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평균 배당률은 12.0%로, 관련 통계를 낸 최근 10년 내 최고를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여유자금으로 현금 배당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0년은 경기 불안정에 따라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 해다.

같은 해 기준 배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0.0%)이었고 경기(14.6%), 부산(13.3%), 경

남(12.0%) 순으로 높았다.

광주·전남 제조 중소기업들의 평균 배당률은 3.4%(2016년)→3.5%(2017년)→4.7%(2018년)→5.4%(2019년)→5.5%(2020년) 등 매년 올라가는 추세지만 전국 성장세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배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건 자본금이 많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실적이 유달리 악화된 기업들의 사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제조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1년 동안 성장성 지표와 자산·자본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광주·전남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3%로, 전년(7.4%)보다 5.1%포인트 급감했다.

지역 제조 중소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전국 평균(122.2%)을 크게 웃도는 130.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30.2%보다 오른 수치다.

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차입금의존도 역시 40.4%로, 전국 평균(36.1%)을 웃돌았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수그러들고 있지만,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기업경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외부감사대상 제조업 법인들의 올해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8.6%로, 전년(9.0%)보다 하락했다.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석유·화학(11.3%→9.2%)과 비금속광물(10.1%→6.6%)을 중심으로 떨어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시작 주택담보 대출 최저 연 3.7%로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연합뉴스

'납품대금 연동제' 첫 시동...정부-기업 손잡다

현대차·포스코 등 41곳 동참...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원재룻값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먼연구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 신청을 했고, 중기부는 이들을 모두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

1호 신청기업은 식품기업인 대성우이고,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는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원자재 단가 변동분을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한 삼성전자가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체 원자재 구매액 중 90%를 차지하는 철반, 레진, 동에 대해 원가 변동분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0% 정도의 원자재에 대해서는 협력사 요청이 있을 때 협의하고 있다.

협약식에서는 선정된 위탁기업 중 30곳이 참여해 수탁기업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수탁기업인 다보정밀의 문광석 대표가 축사를 맡아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시범운영 사업 참여 기업들은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가격 기준지표 등이 기재된 특별약정서로 계약을 맺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 실적에 따라 각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장관표창 수여, 정부 포상 우대, 정기 실태조사 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하도급 불법점 검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한편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자동차 업종 고용지원 강화 방안 논의

광주상의-고용노동청 협의회 개최



광주상공회의소는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자동차업종 고용지원강화 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용위기 극복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의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인한 지역 내 자동차 업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코로나19 이후 채용시장의 변화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자동차 업종 대표, 노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청은 기업의 구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채용지원서비스와 청년도약장려금, 노동전환지원금 등 고용장려금 제도를 안내했다.

이밖에 참여 기업들은 경기둔화 및 자동차 생산 감소로 인한 매출감소, 인력유출과 신규채용에 대한 어려움,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과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시된 지원방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 후 내년도 신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은영 광주상의 협력사업본부장은 "지역내 자동차 업종은 반도체 품귀현상과 원자재 가격 급등

으로 고통을 감내하기 힘든 상황으로, 코로나를 거치며 달라진 고용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지 못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의회가 자동차 업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채용·고용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국세청, 모범납세자 초청 야구 관람

'대통령표창' 명경식 케이엠티 대표이사 시구...세정홍보 행사도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운영석)은 지난 1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올해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해 프로야구 관람 및 세정홍보 행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이날 경기 시작 전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를 위한 시구·시타 행사가 진행됐다. 시구자는 '제56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인 명경식 유한회사 케이엠티 대표이사로, 운영석 청장은 시타를 했다.

또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이날 초청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소개하고,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하는 등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이밖에 경기장 중앙 출입구에 세정홍보 부스를 마련해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과 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행정에 대해 현장 홍보활동도 펼쳤다.

운영석 청장은 "현장에서 납세자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

정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태풍피해 복구 힘쓴 장병 감사합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은 최근 항도부대인 제31보병사단(사단장 최순진)을 찾아 태풍 피해 복구에 힘쓴 군부대 장병에 감사의 뜻을 담아 10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국가가 챙긴다

훈련 수당 月 100만원으로 인상 등 처우 개선

정부가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처우와 훈련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민간 기부금에 의존해온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위원 훈련수당을 내년부터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월 60만원인 훈련수당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약 10년간 개선되지 못해 노후화된 훈련 장비를 최신화하기 위한 투자도 늘린다. 새 훈련 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7200만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계속해서 늘릴 방침이다.

국제대회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전지훈련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술 인재의 길'을 선택한 청년들을 위

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선(先)취업 후(後)진학' 지원도 강화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비율은 2017년 50.3%에서 지난해 28.6%로 떨어졌다. 그만큼 대학 진학자 비율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직업계고 본연의 취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업계고를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반의 학과로 재구조화하고, 민간의 훈련 기관을 연계해 직무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학과당 9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력 취득을 통한 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고, 학교 수업을 통해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DN, 'ESG 추진단' 신설

한전KDN은 'ESG 추진단'을 신설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개선하는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한전KDN은 지난 13일 나주 본사에서 2022년도 'ESG추진단' 전략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ESG 추진단 단장은 김장현 사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외협력 등 4개 실행조직으로 구성됐다.

각 조직은 해당 분야의 ESG 관련 전략과제를 이행·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는 올해 ESG경영 전략체계 고도화 추진 결과 보고와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 온실가스 50% 감축,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청렴도 1등급 달성 등 ESG 각 분야의 3대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이외 '탄소중립에

너지ICT 신사업 확대' 지역 및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상생협력' 등 12개 주요 전략과제(안)도 확정했다.

한전KDN은 향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개최해 ESG전략을 최종 의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1.42(-38.12)
↓ 코스닥	782.93(-13.86)
↑ 금리(국고채 3년)	3.585(+0.049)
↑ 환율(USD)	1390.90(+17.30)